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7년 11월 30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홍경식, 차장 김용민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세계경제지표

		16.4/4	17.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연율, %) ¹⁾	1.8	1.2	3.1	3.3	-	-	-	-
	소매 판매(전기비, %) ¹⁾	1.5	1.1	0.3	1.0	0.5	-0.1	1.9	0.2
	제조업생산(전기비, %) ¹⁾	0.4	0.6	0.6	-0.3	-0.2	-0.2	0.4	1.3
	ISM제조업(기준=50) ²⁾	53.3	57.0	55.8	58.6	56.3	58.8	60.8	58.7
	실업률(%) ¹⁾²⁾	4.7	4.7	4.4	4.3	4.3	4.4	4.2	4.1
	비농가취업자수증가(만명) ¹⁾²⁾	14.8	16.6	18.7	12.1	13.8	20.8	1.8	26.1
유로	GDP성장률(전기비, %) ¹⁾	0.6	0.6	0.7	0.6	-	-	-	-
	소매 판매(전기비, %) ¹⁾	1.0	0.4	1.0	0.6	0.0	-0.1	0.7	..
	산업생산(전기비, %) ¹⁾	1.1	0.1	1.1	1.0	0.4	1.4	-0.6	..
	제조업PMI(기준=50) ²⁾	54.0	55.6	57.0	57.4	56.6	57.4	58.1	58.5
	경기체감지수(기준=100) ²⁾	106.9	108.0	110.0	112.1	111.3	111.9	113.1	114.1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8	6.9	6.9	6.8	-	-	-	-
	수출(전년동기비, %)	-5.3	7.5	8.5	6.5	6.5	5.1	8.0	6.9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10.6	10.0	10.8	10.3	10.4	10.1	10.3	10.0
	고정투자(전년동기비, %) ³⁾	8.1	9.2	8.6	7.5	8.3	7.8	7.5	7.3
	제조업PMI(기준=50) ²⁾	51.4	51.6	51.4	51.8	51.4	51.7	52.4	51.6
브라질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3.0	1.2	0.3	3.1	2.8	3.9	2.6	..
러시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1.7	0.1	3.8	1.4	1.1	1.5	0.9	0.0

주: 1) 계절조정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누계 기준

□ 국제금융시장은 주가가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금융지표¹⁾

		17.6월	7월	8월	9월	10월	11.29일
전세계 MSCI		465.1	477.6	478.4	486.9	496.6	504.1
- 선진국		1,916.4	1,961.1	1,959.7	2,000.6	2,036.8	2,066.2
- 신흥시장국 (중국 ²⁾)		1,010.8	1,066.2	1,087.7	1,081.7	1,119.1	1,141.4
		3,192.4	3,273.0	3,360.8	3,348.9	3,393.3	3,337.9
VIX		11.2	10.3	10.6	9.5	10.2	10.7
환율	달러인덱스	95.6	92.9	92.7	93.1	94.6	93.2
	중국 ³⁾	6.78	6.73	6.60	6.65	6.63	6.60
	브라질 ³⁾	3.31	3.13	3.15	3.16	3.27	3.25
	인도네시아 ³⁾	13,326	13,322	13,340	13,452	13,568	13,503
국채금리 ⁴⁾ (%)	미국	2.30	2.29	2.12	2.33	2.38	2.39
	독일	0.47	0.54	0.36	0.46	0.36	0.39
CDS프리미엄(bp)	브라질	241.4	209.3	195.7	194.8	171.4	170.1
	인도네시아	117.5	111.8	100.2	104.1	93.6	93.1
	한국	52.7	57.7	60.1	73.8	72.4	57.5

주: 1) 기말 기준
4) 10년물 기준

2)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3) 미달러화 대비

□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 폭이 둔화되는 등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 대중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호조를 지속하면서 지난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2014	2015	2016	164/4	17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										
GDP 성장률 ¹⁾	3.3	2.8	2.8	0.5	1.1	0.6	1.4	-	-	-	-
(민간소비)	1.7	2.2	2.5	0.2	0.4	1.0	0.7	-	-	-	-
(설비투자)	6.0	4.7	-2.3	5.9	4.4	5.2	0.5	-	-	-	-
(건설투자)	1.1	6.6	10.7	-1.2	6.8	0.3	1.5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2.0	4.1	4.3	2.1	-0.5	1.2	1.1	0.2	-0.8	3.1	-2.9
설비투자지수 ²⁾	5.2	6.9	-1.3	8.0	5.6	4.4	-0.4	-5.3	-0.8	5.3	-14.4
건설기성액 ²⁾	-0.7	5.0	15.4	4.1	5.9	-1.1	0.7	2.8	-1.0	-1.3	0.8
수출(통관) ³⁾	2.3	-8.0	-5.9	1.8	14.7	16.7	24.0	19.5	17.4	34.9	7.1
- 일평균 ³⁾	3.3	-8.7	-5.9	0.4	13.0	17.6	19.6	19.5	17.4	20.5	33.9
제조업생산지수 ²⁾	0.3	-0.3	1.0	0.8	1.5	-2.5	1.6	1.5	0.3	0.4	-1.5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3	2.9	3.0	-0.3	0.9	0.6	1.4	0.6	0.1	1.0	-1.7
소비자심리지수 ⁴⁾	106.0	102.7	99.5	97.3	94.8	106.8	109.6	111.2	109.9	107.7	109.2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6	71	70	72	77	81	80	78	78	83	81
취업자수 증감 ⁶⁾	533.0	336.9	298.9	302.2	360.1	366.7	279.3	312.5	211.9	313.6	278.7
(제조업)	145.6	156.3	-4.6	-110.3	-111.8	-23.4	31.2	49.5	24.7	19.5	28.0
고용률(원계열, %)	60.2	60.3	60.4	60.7	59.4	61.2	61.3	61.5	61.1	61.3	61.3
실업률(원계열, %)	3.5	3.6	3.7	3.2	4.3	3.9	3.5	3.5	3.6	3.4	3.2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BSI 기준

6) 천명(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의 증감), 전년동기비

[물 가]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지난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의 소멸 등으로 1%대 후반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16.4/4	17.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¹⁾	1.5 (0.6)	2.1 (1.1)	1.9 (0.0)	2.3 (0.6)	2.2 (0.2)	2.6 (0.6)	2.1 (0.1)	1.8 (-0.2)
▪ 농축수산물 (농산물)	7.5 9.1	6.1 4.7	6.1 3.6	8.4 10.2	8.6 9.8	12.2 16.2	4.8 5.2	3.0 2.3
▪ 공업제품 (석유류)	0.4 -2.3	2.1 12.0	1.3 7.7	0.9 3.4	0.7 0.5	1.0 3.6	1.2 6.1	1.5 8.2
(석유류 제외)	0.8	0.7	0.3	0.5	0.7	0.5	0.4	0.4
▪ 전기·수도·가스	-8.7	-6.9	-2.4	8.0	8.0	8.0	8.0	-1.6
▪ 서비스	2.1	2.1	2.0	1.9	1.9	1.8	1.8	2.0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1.7	1.7	1.5	1.4	1.5	1.4	1.4	1.6
▪ 농산물·석유류 제외	1.5	1.5	1.4	1.7	1.8	1.8	1.6	1.3
기대인플레이션율 ²⁾	2.5	2.7	2.6	2.6	2.5	2.6	2.6	2.6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시장]

- 금융시장은 장기시장금리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상승하였으나,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경기 회복세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17.6월	7월	8월	9월	10월	11.29일
통안증권금리(91일물, %) ¹⁾²⁾	1.30	1.26	1.26	1.28	1.38	1.51
국고채금리(3년물, %) ¹⁾²⁾	1.70	1.72	1.75	1.89	2.16	2.11
국고채금리(10년물, %) ¹⁾²⁾	2.21	2.23	2.26	2.38	2.57	2.48
KOSPI ¹⁾	2,392	2,403	2,363	2,394	2,523	2,513
원/달러 환율 ¹⁾	1,144	1,119	1,128	1,145	1,120	1,077
(전월말대비 절상률, %)	-2.15	2.24	-0.78	-1.54	2.23	4.05

주: 1) 기말 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16.4/4	17.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¹⁾²⁾	19.7	5.9	17.1	18.2	6.7	6.6	4.9	6.8
▪ 주택담보대출 ²⁾³⁾	15.1	5.5	11.4	11.1	4.8	3.1	3.3	3.3
▪ 기타대출 ⁴⁾	4.5	0.5	5.7	7.0	1.9	3.4	1.7	3.5
주택 매매가격(%) ⁵⁾	0.4	0.1	0.5	0.6	0.2	0.2	0.1	0.1
▪ 수도권 ⁶⁾	0.6	0.1	0.7	0.8	0.3	0.4	0.2	0.2
(서울)	0.9	0.2	1.2	0.9	0.4	0.5	0.1	0.2
▪ 광역시 ⁷⁾	0.6	0.2	0.4	0.6	0.2	0.2	0.2	0.1
▪ 지방 ⁸⁾	0.2	0.1	0.2	0.3	0.1	0.1	0.1	0.1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5)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6) 서울, 인천, 경기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